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10. 30.(금)

“국민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 한 총리, 민생침해범죄 대응 주역들에 감사

- 민생침해범죄, 일상을 위협하고 사회 근간을 흔드는 뿌리 뽑아야 할 범죄
- 보이스피싱 피해액 56% 감소 등 민·관 하나 되어 ‘매우 의미 있는 성과’
-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불철주야 노력해온 11인 초청하여 감사와 격려

□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30일, 보이스피싱, 마약, 초국가범죄 등 민생 침해범죄 분야별 대응에 기여한 분들을 초청하여 격려 오찬을 개최했다.

- 이번 오찬은 각종 민생침해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수사·단속 및 피해자 구제 등 일선 현장에서 불철주야 헌신해 온 참석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일시/장소) 10.30.(금) 12:00~13:25 / 국무총리 서울공관

** (참석자) 오창배 경찰청 통합대응단장, 윤영환 경기도립정신병원 원장, 이지연 검사, 왕문주 엔에이치엔링크(주) 대표이사, 정준교 경장, 변성은 주무관, 이다행 사무관, 한창수 경감, 윤원희 경감, 민혁진 금융감독원 팀장, 양영훈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장

□ 한성숙 국무총리는 민관이 하나 되어 민생침해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 범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등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참석자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이날 오찬에서 한 총리와 참석자들은 대응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현장 경험에 대한 진솔한 소통을 이어갔다.

- 먼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49% 감소, 피해액 56% 감소라는 눈부신 성과를 이끈 경찰청 오창배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단장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범행 번호 긴급차단 등을 통해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외 도피 '마약왕' 송환에 기여한 법무부 이지연 검사는 "현지 당국과의 끈질긴 설득과 교섭이 송환의 핵심이었다"며 국제 공조과정을 전했다.
 - 불법사금융 무효확인서 발급 등 초동조치를 강화한 금융감독원 민혁진 팀장은 "강력한 행정 조치와 촘촘한 법률 지원이 맞물려야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이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연계방안, 매크로 차단을 통한 압포 대응, 폐쇄적인 지역 유착비리 단속 노하우 등 민생침해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 한 총리는 "이 모든 결실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노력해 주신 것에 더해,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는 적극 행정과 부처간 긴밀한 협업 덕분"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김부선 (044-200-2082)
		담당자	사무관 이규빈 (044-200-2083)

보이스피싱
(9.23)

 **한성숙** 
@han_seongsook

 ...

#민생침해범죄대응

<보이스피싱,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일상과 우리 사회의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중범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전방위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1조 2천억 원이 넘는 피해금액은 6천5백억 원대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발생 건수도 2만 2천여 건에서 1만 3천여 건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국민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보이스피싱을 시작으로 마약, 불법사금융, 토착비리, 암표, 초국가범죄까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대응 성과를 매주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어떤 요소도 정부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평안한 추석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는 늘 깨어 있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안전 #국무총리 #한성숙



*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https://x.com/han_seongsook/status/2102632558295187823

마약
(9.30)



한성숙
@han_seongsook



#민생침해범죄대응

<마약제로 대한민국을 완성하겠습니다>

역대 최고치의 검거·적발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온라인 마약사범 6,641명 검거, 공항·항만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통로에서 마약류 3,975kg 적발 등을 달성해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많은 검거와 단속을 이루었습니다.

필리핀 마약 핵심 총책 박왕열 구속 송치, 국제우편 밀수 2차 저지선 가동으로 약 5.84kg 적발 등 눈에 띄는 또 다른 성과들 역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치료보호기관을 11개소로 확충하고 치료비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교정시설과 전국 17개 마약중독재활센터를 통해 중독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청소년·군인 등 357만여 명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시행하며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 명의 마약사범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목숨과 안전 앞에 정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겠습니다.

#한성숙 #마약제로 #마약청정국 #마약문제상당1342



https://x.com/han_seongsook/status/2105104528328847658?s=20

암표
(10.7)



한성숙
@han_seongsook



#민생침해범죄대응

<암표, 팔면 잡힙니다>

11만 원짜리 BTS 공연표는 300만 원에 되팔렸고, 2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임영웅 콘서트표는 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암표가격입니다.

암표는 창작자와 선수의 정당한 몫을 빼앗고, 공정한 관람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장 교란 범죄입니다.

지난 8월 28일 암표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매크로 등 방법에 상관없이 웃돈을 얹어 표를 팔거나 알선하는 행위 모두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 전부터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꾸려 홍보와 캠페인을 이어왔습니다. 법 시행 이후 하루 평균 암표 신고는 전년보다 약 17배 늘었습니다.

단속 성과도 분명합니다.

3월부터 8월까지 매크로 등으로 콘서트·프로야구 암표를 거래한 157명을 검거하고,

고가·대량 판매 의심자 170명을 경찰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미끼상품 끼워팔기 등 변칙 판매 역시 수사 의뢰 추진하겠습니다.

곧 시작될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서도 국민 여러분이 마음 편히 경기를 즐기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암표 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엄정히 단속하고, 부당한 이익은 끝까지 환수하겠습니다.

#한성숙 #암표근절 #암표금지법



https://x.com/han_seongsook/status/2107702264567931209

토착
비리
(10.14)



한성숙
@han_seongsook



#민생침해범죄대응

〈뿌리 깊은 토착비리,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공공사업 계약을 몰아주고,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는 일. 공직자와 민간기업, 브로커가 결탁해 지역의 이권을 나눠 갖는 토착비리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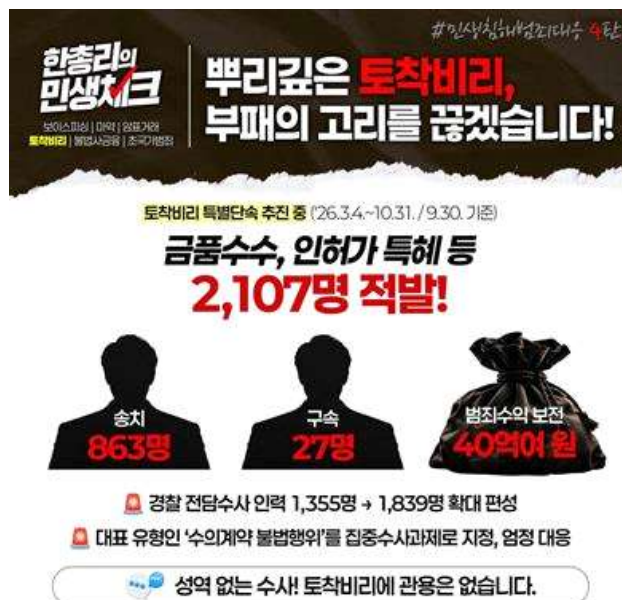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해 9월 말까지 금품수수과 인허가 특혜 등으로 2,107명을 적발하고, 이 중 863명을 송치했으며 27명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경찰 전담수사 인력을 1,355명에서 1,839명으로 확대하고, 대표 유형인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집중수사과제로 지정해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범죄수익 40억여 원을 보전하는 등 부당하게 얻은 이익도 철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칙과 특권을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성역 없는 수사와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공정과 주민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한성숙 #토착비리 #부정부패 #엄정대응



https://x.com/han_seongsook/status/2110167213219197121

불법
사금융
(10.21)



한성숙
@han_seongsook



#민생침해범죄대응

〈불법사금융 근절은 사람을 살리는 민생대책입니다〉

불법사금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삶을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시급한 민생과제이자,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단속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인원은 2023년 2,160명에서 2024년 3,420명, 2025년 4,292명으로 매년 증가해,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3월에는 피해상담부터 즉시 추심중단 요구 등의 초동조치,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등 피해구제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상품권 사채 등 갈수록 교묘해지는 변종 불법사금융에도 대응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온라인 대부광고 규율 강화와 불법광고 파파라치 제도’, ‘위장수사 제도 검토’,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실적 점검’, ‘신속한 수사 의뢰’ 등 4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범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근절 #민생 #한성숙



https://x.com/han_seongsook/status/2112722850855735741?s=20



한성숙

@han_seongsook



#민생침해범죄대응

<초국가범죄, 지구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스캠·마약 등과 같은 초국가범죄는 국경 뒤에 숨어 무차별적으로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민생 침해 범죄이자 국가에 대한 위협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국경 뒤에 숨은 초국가 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 아래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올해 1~9월 동남아 현지 검거 인원은 2.5배, 도피사범 송환은 2.6배 각각 늘어났고, 캄보디아 스캠 관련 납치·감금 등 피해 신고 건수는 95.1% 급감했습니다.

나아가, 동남아 지역에서 단속을 피해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한 스캠 조직의 거점까지 추적·소탕함으로써, 2차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 결코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맞춰 한 치의 빈틈 없는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는 범죄자는 세계 어느 곳에 숨어있든 끝까지 추적하고 엄벌하여,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완벽히 지켜내겠습니다.

#초국가범죄 #스캠 #마약

초국가범죄
(10.28)



https://x.com/han_seongsook/status/2115249203647816102?s=20